

# 불교는 스승이자 필드 동반자

###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에게 불교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골프 해설가들은 골프선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샷을 예측하는 것이 우즈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CBS의 골프 해설가 데이비드 페허티는 "우즈를 보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인조인간이 연상될 정도"라면서 "가끔 내 예측이 완전 빗나가서 망신을 당해 직장을 그만둘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한다.

2003 부의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그 대표적인 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즈의 샷은 깊은 러프에 빠졌고 그 앞은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는데다가 200야드 거리의 그린 오른쪽에 벙커가 있어 어느 누가 보아도 여기서 우즈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러프에서 공을 빼내어 나무 옆으로 올려 그린을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였다.

그러나 우즈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샷을 쳐내면서 직접 그린을 공략했다. 보통은 그런 상황이 다치면 러프에서 공을 빼내느라 급급할텐데 우즈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 후 과감하게 선택했고 이는 전문가들의 찬사를 자아냈다.

불교적 가르침속에서 자라는 우즈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민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서 몰입하고 직관을 따른다"고 말한다.

모든 골퍼는 분석적인 수밖에 없으며 우즈도 예외가 아니지만, 샷을 앞두고 그 분석조차도 비울 수 있는 능력은 우즈만의 힘이기도 하다.

타이거 우즈는 "퍼팅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퍼팅을 성공시키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퍼팅을 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 방법은 쉬워 보여도 훈련을 요하며 자신의 능력,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만 가능하다.

우즈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

을 통해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기사들의 포스와 같은 내면의 힘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자각하면서 그 힘을 지키고 이용하는 능력을 키워갔다고 한다.

우즈의 아버지 얼 우즈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타이거에게 '진실로부터 나오는 힘'을 이끌어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힘을 끌어낼 수 있어야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타이거는 자신에게 진실해지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합니다."

필드에 들어서면 내적인 평화를 느낀다는 타이거 우즈.

중요한 경기중에도 어떻게 감정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지는 질문에 우즈는 "어린 시절부터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와 평정심을 취하는 방법을 배웠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그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이유는 그때 배운 명상때문인 것 같다. 지금 따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생각지 않아도 매일 명상을 하는 셈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삶과 생활전체를 아우르는 지혜와 방법이 불교인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우즈에게 불교적 인생관을 심어준 태국인 어머니 티다 우즈는 1997년 일간지 '방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타이거는 샷이 아주 잘못되면 크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곧 그것을 떨쳐버리고 평정을 되찾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평정심과 놀라운 집중력이 우즈를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부사'로 만든 이유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우즈의 정신적 스승인 어머니 티다는 결혼 전 얼 우즈와 첫 데이트 도중 절에



이은희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 발렌타인 데이와 청소년

해마다 2월이 되면 '발렌타인 데이(St. Valentine's Day)' 선물을 권하는 광고가 곳곳에 넘쳐난다. 우리나라에서 이 날을 요란스럽게 맞이하기 시작하는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양 것이면 좋은 것'이라는 시대 풍조였다. 일년에 몇 차례 '무슨 무슨 데이 특수(特需)'를 노리는 사업가들의 판촉 활동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짧은 기간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되어 버렸다.

대개 '알팍한 상흔(商魂)'을 거론하며 이런 풍조의 책임을 상인들에게 떠넘기지만, '이익이 생기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을 이해한다면 상인들만 비판할 수도 없다.

되돌아보면, 내 자신도 청소년 관련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발렌타인 데이와 화이트 데이 때문에 요란스러운

전국의 학교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런 방침에 따라 종교성에서는 "2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학생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게 하는 등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하라"고 전국의 문화 담당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다.

마카 부차 데이는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근본 가르침(Ovacha Patimakkha)'을 설하신 날을 기념하는 태국 불교의 명절로, 태국 역법으로 음력 3월 보름 날에 열리는데, 올해는 이 날이 발렌타인 데이 하루 전인 2월 13일이다.

태국 종교성은 이 정책을 통해 발렌타인 데이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태국 정부의 이런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한국 불교계에서도 벤치마킹(benchmarking)해볼

## 서양 기념일에 요란스런 청소년 비판만 말고 태국서 추진중인 수행 확산 노력 벤치마킹을

광경을 보면 "저런 미친 짓"이라며 욕을 하기만 했다. 그러나 청소년 사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시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 때의 문화 현상'으로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동안 청소년 관련 단체나 언론 등에서 "초콜릿 대신 책을 선물하자", "칫솔(음력 7월 7일)을 청소년 축제의 축복했고 매년 다가오는 생일 때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절에 가서 공양물을 올리고 스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다."

타이거 우즈와 불교, 최근 국내에 출간된 <타이거 우즈 성공철학>북엔북스에는 불교가 오늘의 우즈를 있게 해 준 스승이자 필드 동반자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포츠 저널리스트 알렉스 트레스니오프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우즈가 퍼팅을 하기 위해 그린을 읽는 모습은 참선에 든 스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만 하지 않을까? 태국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그들의 현실이 우리와 크게 다르니 동일한 방식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이를 통해 인성을 개발하려는 노력 그 자체에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동안 "서양 문물에 무분별하게 몰들었다"며 젊은이들을 탓하거나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요즘 아이들은 안 된다"며 미리 포기하지 말자. 심각한 고민을 한다면 '우리의 답'이 나온다. 그들을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마당을 펼쳐주고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벤치마킹은 기업 경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법법(佛法)의 가르침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그들이 도덕적·영적(靈的)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프리차 칸티야 국장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 자유기고가

**용문사 윤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종풍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소시는 길**

버 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합천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인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대승사에서 5분거리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방생차량 대령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http://www.yongmoonsa.com)